

아·태 마스터스 성공 '강행군'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임원·회원 종목단체 회장 만나 대회 설명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이 2023년 전 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30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정강선 회

장이 오는 5월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수 있도록 참가자 모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대회가 약 100일 가량 남

은 현 시점에서 국외 참가자 모집이 당초 목표인원보다 부족하자 지난 28일 긴급 필리핀 마닐라를 찾았다. 세계한인체육총연합회(회장 윤만영)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 회장은 윤만영 회장을 비롯,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임원들과 회원 종목단체 회장들을 직접 만나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설명한뒤 협조를 구했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는 흔쾌히 협조요청을 수락한 뒤 많은 국외 참가자 및 재외 동포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 회장은 필리핀 현지 언론사(방송 신문) 관계자들을 초청, 기자회견을 열고 아태마스터스 대회 범 조성을 위해 필리핀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국제종합생활체육대회에 걸맞게 국외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현지 언론을 적극 활용한 것.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지 언론사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비자 발급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다.

이에 정 회장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에서 외교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의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첫 치러지는 국제생활체육대회가 한국, 우리 전북에서 펼쳐지는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며 "대회를 넘어 전 세계생활체육인들의 추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귀국 후 국내 참가자 모집을 위해 전국 시도체육회를 돌며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뉴시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윤만영 세계한인체육총연합회와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임원, 회원 종목단체 회장들을 직접 만나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설명한뒤 협조를 구했다. (사진=필리핀 현지 전라북도체육회 관계자 제공)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28일(현지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덤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전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경기 후반 14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잉글랜드 FA컵서 108만에 멀티골

손흥민, 환한 미소 되찾다

토트넘 3-0 완승 견인

"손흥민이 지난 시즌 자신이 득점왕에 오른 이유를 팬들에게 증명했다."

올 시즌 골 가뭄에 시달려온 손흥민(31·토트넘)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덤데일 경기장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2부리그)와의 FA컵 32강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85분까지 뛰며 두 골로 토트넘의 3-0 완승을 견인했다.

올 시즌 공식전 7, 8호골로 지난 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EPL 19라운드 이후 5경기 만에 득점이자, 도움 1개를 올린 지난 29일 풀럼과의 21라운드 이어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다.

한 경기 멀티 득점은 지난해 10월 13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홈 경기 이후 108일 만이다.

손흥민은 이날 두 골을 추가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총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으로 인한 짝퍽한 일정과 안와골절상으로 무뎠던 손흥민의 발끝이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아스널을 상대로 유효슈팅 1개에 그쳤던 손흥민은 이날 4개의 슈팅을 모두 상대 골문 안으로 성공시키며 슈팅 정확도 100%를 자랑했다.

또 이 중 2개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모처럼 멀티골로 필렐 날았다.

슈팅뿐만이 아니다.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 내 최다인 2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고, 패스 정확도도 무려 95.7%에 달했다. 이 역시 팀 내 2위다.

상대가 2부리그에서도 중위권인 팀이지만, 원정인 데다 챔피언십 소속 팀들의 거친 몸싸움과 견제를 고려할 때 손흥민의 활약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후스코어닷컴도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최다인 평점 9.07점을 부여했다. 손흥민을 제외하면 평점 8점을 넘는 선수는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대신 기자회견에 나온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며 "손흥민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 득점을 만들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뻐했다.

현지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이번 시즌 득점왕의 모습을 찾았다고 칭찬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이자 패널로 활동 중인 앨런 시어러는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토트넘 산배인 제메인 제너스는 "손흥민이 예전으로 돌아갔고 있다"고 했다. BBC도 "손흥민이 상대와의 수준 차이를 증명했다"며 "후반이 시작하고 자신이 왜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는지 팬들에게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손흥민도 이날 멀티골로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골들이 중요하다"며 "공격수에선 득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빅토르 안' 안현수, 국내 복귀 무산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 탈락... 시, 소통 능력 등도 판단

2011년 한국을 떠나 러시아로 귀화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38·한국령 안현수 사진)이 국내 복귀를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30일 빙상계에 따르면, 빅토르 안은 경기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코치에 지원했지만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다.

시는 기술적인 역량 외에 소통 능력, 리더십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를 향한 여론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빙상팀 코치 선발을 위한 공고를 냈고, 빅토르 안



간판 스타였다.

2011년 소속팀 성남시청이 해체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결심과 함께 러시아로 귀화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소속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은퇴 무대로 삼으려 했던 2018 평창 올림픽에선 러시아의 선수단 도핑 스캔들에 휘말려 출전이 불발됐다.

지도자로 변신한 안현수는 2020년 중국 대표팀 기술 코치를 맡아 중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메달 4개(금 2, 은, 동1)를 따는 데 힘을 보탰다.

앞서 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의 코치직 지원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서를 내고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을 당시 매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간 뒤 몰랐던 척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구 팬들과 교감하고 프로농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 및 대중의 니즈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받아간 뒤 몰랐던 척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

KBL TV, 10만 구독자 달성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의 유튜브 채널 'KBL TV'가 2018~2019시즌 첫 선을 보인 이후 5시즌 만에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

'KBL TV'는 농구를 매개로 대중과 선수의 소통하고 선수들의 다양한 일상을 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였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아시아부터 제도가 필리핀 선수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해외 팬들에게 KBL을 소개하기 위해 콘텐츠에 영문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L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구 팬들과 교감하고 프로농구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미디어 및 대중의 니즈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 성공 개최 기원



의 암 송 (천연기념물 제397호)